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참구세주

조희성님이 나이 오십이 되던 해, 1980년 10월 15일에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 밀실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나(我)라는 조희성은 죽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온전히 좌정하셨던 것이다(연단과정 중에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고 몸 전체가 하나님의 피로 다시 재조성되는 현상이 있었음).

1차 보광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령(聖靈)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듯이, 밀실에서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 자신을 의식하려 의식할 수 없는 무아(無我)의 경지(자신의 이름조차 생각하지 않음)에 이른 조희성님이 이긴자가 된 후에 《1차 보광》이라고 할 수 있는 빛으로 화한 적이 있는데, 이하 설교 말씀이 증명한다.

“이사람이 1980년도에 이긴자가 되어 가지고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다. 이사람을 이끌고 이 우주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 종락- 이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점사비행기가 바로 이사람 타고 다니던 거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이사람을 빛으로 화하게 해놓고 점사비행기를 타고 우주 몇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사람이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1989.07.09. 설교 말씀 인용).” 《유튜브 설교동영상 <https://youtube.com/AuKtW8USG2s>》

이렇게 빛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긴자 조희성님이 빛으로 화한 보광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자, 그때 밀실에서 아담 이긴자



구세주 존영사신의 눈을 바라보면 영생의 빛이 되는 감로를 받는 체험을 한다

를 키우시던 해와이긴자께서 빛으로 화한 아담 이긴자에게 밀실에서 연단받고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하여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고 지시하였다.

조희성님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해와 주님이 지적인 사람의 죄를 담당하자, 신기하게도 빛의 성체(聖體)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 몸을 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속의 병마(病魔)가 소멸되어 죽을 병이 낫고 정육이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악한 마음도 사라져 양과 같이 순해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담 이긴자 조희성님이 태초의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던 영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치

로, 현세에 사는 인간들도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희성님 형상을 바라보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빛의 聖體)으로 화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장대 위에 놋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짜 구세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다(행3:22).

2차 보광

특히 7년 동안 1차 육고(獄苦)를 치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재차 감옥으로 수감되어 《2차 보광(普光)》이 이루어질 것도 염두하셨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초창기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상승한 2000년대에 이르자,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근 조희성님의 존영사신을 해의 및 전국 제단에 비치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리하여 말기암 환자가 조희성님의 사신을 바라보고 완치되는 이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제단 벽에 걸려 있던 조희성님의 사진에서 감로 이슬성신이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기도 하였다(요음 2:28-32).

젊은시절 조희성님이 육중에 갇힌 영모님을 면회할 적마다, 영모님께서 육군중위 조희성님의 두 손을 붙잡고 우셨다. 죄를 담당하는 고통을 먼저 겪던 영모님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끌 하늘의 사람 조희성님이 앞으로 당할 해산의 수고(사커면 피를 위로 토하고 아래로 쏘는 행위)를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이다. 마침내 1980년도에 하나님의 빛(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한 둘째 아담 조희성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시작하자, 빛이 되신 성체에 당신과 상관없는 죄(罪)의 물질로 오염당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육신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2004년 6월 19일 2차 보광 이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영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제는 예배도 길게 볼 필요없이 구세주의 눈만 쳐 바라보면 죄가 사해된다고 말씀하심). 2차 보광을 앞둔 시점에 조희성 주님께 서 신자들에게 늘 웃으라고 한다. 이는 인두 겁(인간의 몸을 뒤집어쓰고 죄를 담당하는 고통의 해산수고를 하지 않고도 원시반본된 빛의 하나님 상태에서 극락(極樂: 극도의 쾌락)을 누리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영의 단계에 이르렀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뻐서 성도들로 하여금 웃으라고 하신 것이다.*

박대선 기자

보광 간증담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어느 때에 말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어야 돼? 안 해주어야 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가져가지고 또 ‘예휴, 속였다’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 「2000년 11월 7일 말씀에서」

1차 육고 때부터 보광을 계획하심

구세주께서는 현금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죄로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실 때 재소자 중 진찰하게 지냈던 이동철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이번에 석방되어 나가지만 다시 육중에 들어와 여기서 보광(普光)하게 된다.” 이런 말

씀에 이 씨는 “주님께서 영육일체를 논하셨는데... 그리고 구세주는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것은 천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루었어! 내가 희생이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 영생 얻게 된다.”라고 답변하셨다는 것이다.

과연 구세주의 그러한 말씀대로 7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육중으로 들어가셨는데, 2차로 육중으로 들어가신 구세주께서는 그곳에서 보광(普光)하신 것이다.

한편 주님께서 7년 옥고를 치르시던 당시 해동공장에서 근무하던 여형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보광과 관련된 꿈을 꾸어 이야기다.

“꿈속에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나는 주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는데 운동장

을 빠져나와 오솔길로 계속 가시더니 보광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리고 잠을 깬다. 출옥하신 주님께서 3년 만에 다시 육중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보광하셨다. 그런데 보광식을 치른 곳의 꿈에서 본 그대로 똑같았다. 그리고 보광식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새로 완공된 부천종합운동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천종합운동장에 직접 가서 처음으로 구경하니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이상과 같이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보광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보광의식을 치르는 장소와 방식조차 인간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보광 이후도 실제 모습으로 현현

2005년 2월 23일 수요일 본부제단 집무실에 보광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

셨다.

해와주님께서 쇼파에 앉은 주님한테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그래.”라며 꾸짖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단상에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 왔잖아?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야.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를 전부 해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난 완전무결한 의인이라는 의미야. 무죄판결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을 나와서 병원에 간 것은, 죄를 담당하느라 병든 인간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시반본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분신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변신의 역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금주의 말씀 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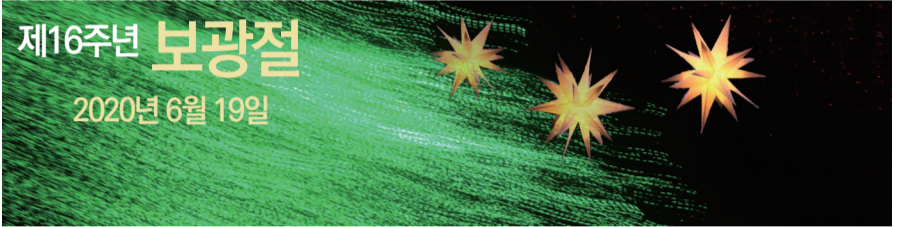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5> “다 함께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이 하는 기도문을 듣고 놀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 털끝만 한 마귀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 혼자서 마귀를 죽여 왔지만, 이제는 승리제단 식구들이

다 함께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마귀를 죽이는 병자들인 고로 눈을 똑바로 뜨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 준비 오장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비장)

비장은 왼쪽 갈비대가 끝나는 곳, 정확히 명치 밑 위장의 뒤편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흔히 속이 울렁일 때, 비위가 상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비위가 비장과 위장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과 위장은 뿔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장 기능이 떨어지면 동시에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장이 약한 사람은 평소 피로감 무거워짐에 시달리며, 또 몸이 비짜 마르게 되고 영양장애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래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물을 소화시켜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온몸에 공급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脾)를 ‘후천의 기(氣)를 공급하는 근본(後天之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물질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비(脾)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운화(運化) 기능’이라고 합니다. 비(脾)의 운화 기능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영양 물질을 흡수하여 온몸의 장기와 조직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폐, 신, 심초 방광과 함께 몸안의 체액을 돌아가게 하고 배설 작용을 하게 하여 수분 대사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이 두 번째 운화 기능은 바로 이어서 말할 수분 대사 기능을

가리킵니다.

둘째, 수분의 흡수와 배설 기능을 주관합니다.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잤을 때 눈이 푸석푸석 붓는다거나 급체했을 때 붓는 증세가 오는 것은 비(脾)의 이러한 기능이 장애가 온 것입니다.

셋째, 비(脾)는 온몸의 피가 정상적으로 혈액 속을 따라 순환하도록 조절하고 통출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장애가 오면 코피, 붕루(치궁출혈), 빈혈, 피하 출혈 등 출혈성 증세와 함께 비(脾)의 기(氣)가 허해지는 증세가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입 및 입술과 관련이 있고, 팔다리 근육의 영양과 활동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脾)가 입과 관련 있다는 말은 주로 입맛과 관계됨을 뜻합니다.

비(脾)의 기가 허해지면 아무런 입맛을 모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세를 일으키고 비(脾)에 습열(濕熱)이 있으면 단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입술과 관련 있다는 것은 입술의 색깔이나 건조감 등이 비(脾)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비(脾)는 살(肉)을 주관하여 살은 비(脾)의 소화기능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양물질을 받아서 튼튼해 집니다.

만약 비, 위의 장애로 영양 물질을 잘 공급받지 못하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비장을 강화하려면 우선 적절한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비위 상할 일을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나를 이기는 삶

행운을 부르는 법칙은 따로 없다. 행운은 나를 이기는 삶을 쫓아 나올 뿐이다. 운이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절대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運)이란 ‘꿈어린 것을 이어주는 것’ ‘망기진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중에 언제 시작하고 언제 거둬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 시기, 즉 때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이 책에서 권하는 지혜로운 글대로 행하면 문득 운이 활짝 열릴 것이다. 대운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

박철수 원저자 박철수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부장, 학생회장, 청년회장을 거치면서 한때는 무용과 합창단 지휘자, 드럼 밴드 연주자 및 무용과 관련된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통해 자연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살면서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이 작성 실천하고 있다. ps03393@naver.com

시간서적
도서출판 해인

46면형 / 256면 / 값 13,800원 / 도서출판 해인
TEL : (032) 343-9985 Email: bookman5@naver.com

본부제단 5월 성적 1등 4지역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9일(화요일) 구역장회의를 열고 본부제단 5월 성적에 대한 우수자들에게 시상하였다.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3등: 2지역(지역장: 서보복, 지회장: 김혜선)

*구역 1등: 15구역(구역장: 김혜선) 2등: 14구역(구역장: 서보복) 3등: 32구역(구역장: 홍경숙)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2등: 정수윤 승사 3등: 서보복 승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누구를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

사람들은 다 길을 가는 거와 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죽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길을 가는 것도 죽는 길을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지관이 올바로 서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가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죽기 위한 가지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6000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면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을 몸이 되었다면 또 흠을 빚어서 죽지 않는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된 인간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 상태의 생각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완

전히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흠을 빚어서 만들어진 걸로 상상을 한 사람이 성경을 그와 같이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도 죽은 것은 바로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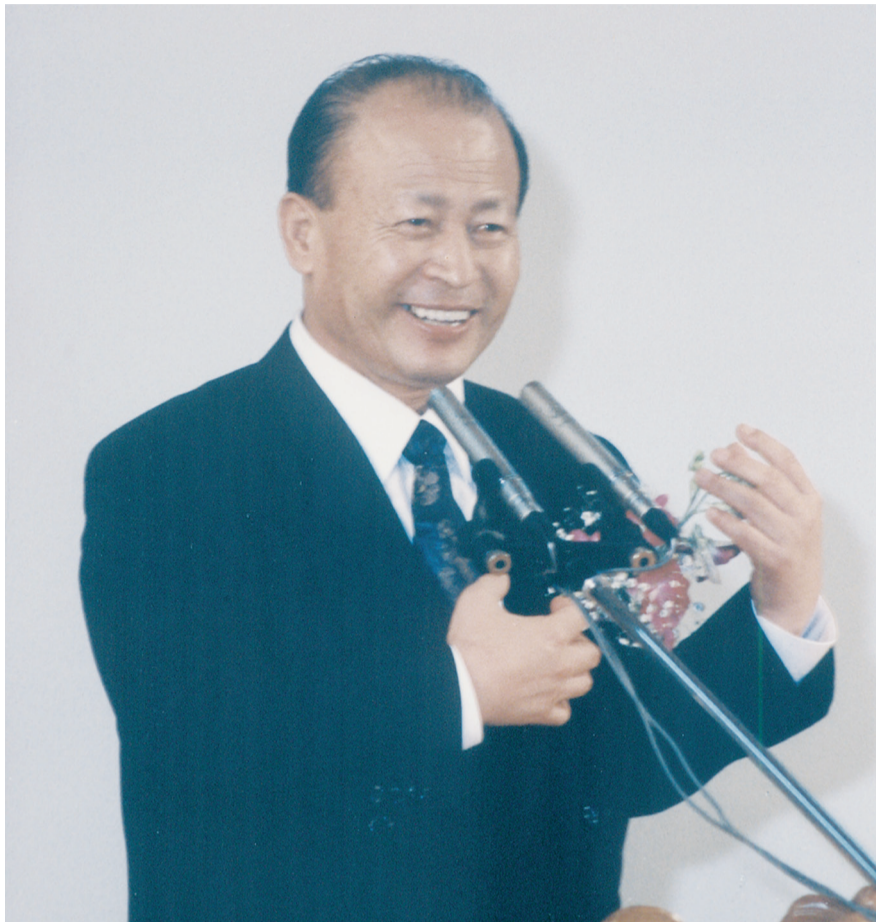
성경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해와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예뎜 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어야 하늘나라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어야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사신 곳이지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고로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예뎜 동산에서 살았는데 예뎜동산이 천국이요 하늘나라라면 바로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던고로 성경 구절, 구절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

또한 성경과 불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바로 사람 자체가 하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이라는 말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어린이가 장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자격이 없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격이 없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니까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한 4-5년 되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시민권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되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이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소리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영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생명의 영이라는 말은 영적 말이요, 영적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로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

이고로 영생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라야 영생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되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마귀를 이겼다가 되고 마귀를 이겨야 사망권세를 이겼다가 되니까 영적 무덤을 파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얘기보와 같은 마귀 영 속에서 석방돼 나오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이고로 영적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예수의 몸이 다시 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다시 살았다고 해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로 하나님의 영의 부활을 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봐야 성경이 술술 풀어지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사람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명이 있는 고로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바로 선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 선한 영이요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람,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있는데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란 말씀이 쓰여 있는데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버려라." 이 말씀이 성경이나 불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선악과요, 나라는 것이 바로 마귀요, 나라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고로 항상 버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라는 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게 천당 간다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고로 마귀 영 속에 갇혀있는 생명의 영이 되는 양심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영적 무덤을 파하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 6월 2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훈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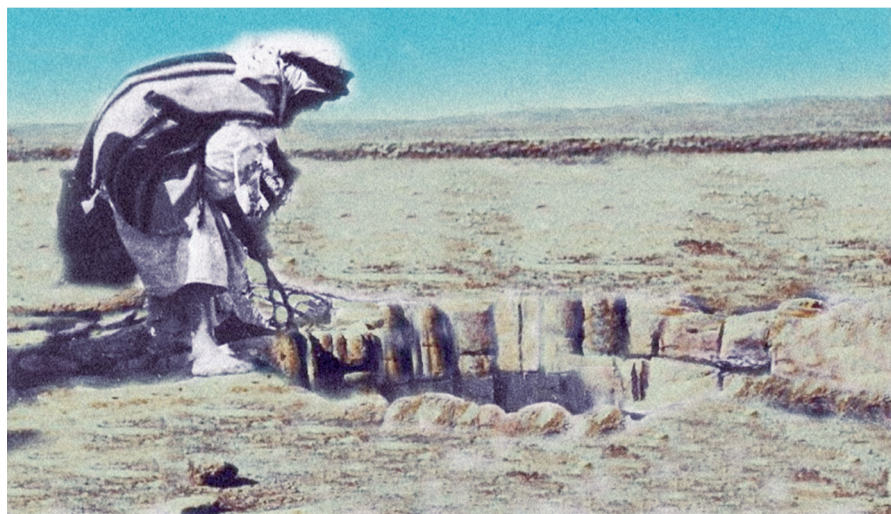
(1) 외아들을 바치는 마음

(지난호에 이어서)
또한 아들 이삭의 순종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자라는 데 가속을 붙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핏줄을 타고 그 영이 승승장구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내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서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 그 밭에 있는 천막으로 돌아가서 말고 브엘세바로 잠적하라'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한 때에는 마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승리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겨우 한 단계 정도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에 현존하는 아브라함의 우물(창 21:30) 생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반제로 순종하는 일이 있기 보름 전에, 아브라함은 그밭의 천막에서 동쪽 20킬로미터 떨어진 브엘세바에 자신이 판 우물을 증거로 삼기 위해 암양새끼 일곱을 그밭왕 아비멜레에게 주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우물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암양새끼의 일곱 숫자와 에셀나무의 영생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첫째 천사 아브라함, 둘째 천사 이삭, 셋째 천사 야곱에 이어 넷째 천사 단 그리고 다섯째 천사 예뎜, 여섯째 천사 해와 이긴 자, 끝으로 일곱 번째 천사 구세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될 때에 죽음이 없는 영

《2장 이삭의 하나님》 (1) 어머니 사라의 임종

(1) 어머니 사라의 임종

아브라함은 나이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브엘세바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아내 사라가 헤브론의 마므레 천막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23년 전에 마므레에서 "사라 구십 세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 자신은 마음속으로 웃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 사라 자신은 두려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고 했을 때, 그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자애로운 음성으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응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라 113세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종들이 가족을 이끌고 기랴아르바(헤브론)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라는 14년간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죽은 아내 사리를 마므레 앞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지냈습니다. 모리아 산꼭대기 제단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삭은 이제 서른일곱 살의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하여 너무 슬퍼 이름을 불렀으리라



막벨라 동굴에서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아브라함과 그를 부축하는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그 해에 기랴아르바에서 브엘세바의 남쪽 네게브(네펠)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네게브 이주 동기는 물론 아들 이삭의 건강을 걱정할 데에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4년 전에 일곱 살 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족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스마엘을 텨볼 한 구석에 내려놓고 "어린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하고 화살 한 방탄거리 만큼 떨어져 주저앉아 탄식하니, 마주 바라본 이스마엘도 엄마와 함께 소리 내어 영영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갈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네 아들의 울

부짓는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불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녀의 눈에 '브엘라헤로'라는 샘이 보였습니다. 하갈은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두 모자는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 비탄 광야에서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 브엘라헤로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807킬로미터쯤 떨어진 서남쪽 네게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샘은 하갈의 태중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에, 주인 사래가 청 하갈의 땀방울을 피해서 머뭇머뭇했기 때문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시어 '짐으로 속히 돌아가라'고 위로했던 곳입니다.* 안젤라

이기는 삶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사람의 지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고 건강상태도 그대로 드러난다.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는지 마음이 불안한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를 듣고 병을 알아맞히기도 한다. 차분한 목소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순수한 목소리의 힘

필자는 아르바이트로 밤에 우유 배송을 하고 있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우유를 트럭에 싣기 위해 트럭을 인도에 올린 후 냉장고 안에서 우유를 꺼내 오는데 누군가 냉장고 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팡이로 '딱딱딱' 나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장님이 길을 잘 못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여학생이 지팡이로 '딱딱딱' 바닥을 치며 냉장고 앞과 트럭 사이의 넓은 나무 디딤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길을

건다가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 무조건 인도라고 생각이 되는 우측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하였더니 "이거 차죠? 차 맞죠?"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맑고 티가 없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나, 왜 인도에 차를 세워놓았느냐는 원망 섞인 소리는 전혀 없었다.

황급히 그 여학생의 어깨를 잡고 방향을 돌려 천천히 인도로 안내하여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었다. 그 와중에도 그 여학생은 계속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자신이 밟을 디딤 곳을 확인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는 인사와 함께 여학생은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 불안한 마음에 멀어지려는 여학생을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이 익숙한 듯 그 여학생은 전혀 지장이 없이 인도를 따라 잘 걸어가고 있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보다, 걸을 수 없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너무 안팎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너



무 티 없이 맑아서 더욱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괜한 걱정이 올라왔다.

그때 헬렌켈러의 '삼 일만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잘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두 눈이 멀정해서 감사하고, 두 귀가 멀정해서 감사하고, 두 팔이 멀정해서 감사하고 두 다리가 멀정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도 앞으로 저 여학생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매일 매일 예배를 보아"

이긴자와 더불어 예배 보는 한 시간이 우주만 한 금덩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역사이므로 매일 와서 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된다. 매일매일 오는 자는 인간의 탈을 벗고 마귀 속에서 석방되어 결국 인간 본연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몸이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우리몸의파워존골반~

잘못된 자세는 몸의 뼈와 근육을 나약하게 하고 생활습관병을 키우게 됩니다. 항상 앉으나 서나, 허리나 아랫배, 다리에 힘을 주는 생활습관을 길러주세요. 요통을 고치려면 골반과 허리뼈를 중점적으로 편하게 만드는 자세 중에서 "현재와 패기 자세"를 추천합니다.

골반의비틀림을 수정하는 자세~

효능: 골반의 높낮이를 수정, 혈액순환을 원활히 도와 생식기, 부인병 예방과

요통 완화.

동작①: 앉아서 왼발은 앞으로 접어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오른발은 구부려서 엉덩이 뒀다. 코로 호흡을 마시면서 두 손은 머리위에서 깎지 끼고 팔꿈치를 양 옆으로 활짝 편다. 배꼽과 골반이 앞쪽 중앙을 향한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②: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가슴과 허리, 척추는 위로 끌어 올린다. 10초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골반을 비껴 늘림으로써 복부에 가스를 빼주는 자세~

효능: 대장과 신장, 직장의 활동을 도와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숙면 제거, 대장, 신장, 복부가 가벼워져 척추에 편안함을 준다. 누워서 다리를 잡아당기면 요추의 위치가 수정된다.

동작③: 등대고 누워 양발을 모은 뒤 세와 패기 자세를 추천합니다. 다. 턱은 살짝 아래로 내리고,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 당긴다. 10초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동작④: 호흡을 마시며, 무릎에 살짝 힘을 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끌어당겨 턱을 댄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주의: 양쪽 골반과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어깨에 힘을 뺀다.*



격암유록 新해설 제79회

하늘의 무궁함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무궁함이 하늘의 마음이라

格菴歌辭 격암가사

天下一氣再生身 先天아기재생신 仙佛胎胎幾年間 선불태태기간에 天道門前도문아열려오고 厄화세상사람달아아러보고아러봐서 남의 農事농사고만고 내집농사農事저보세 福복바다라부는노래 四海사해가 진동커늘 不불고父母부모가는 四사람 답답하고不詳불상터라 天地합덕父母친자합덕부모님이 無知人間무지인간살나자고 天語傳천어전어인말을 사람 不知尊부자욕을하니 내죄상이더럽고나

신선(神仙)이요 미륵불이 천하 일기로 다시 몸을 나투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이제 천도문(天道門) 즉 불사영생의 문이 열렸으니 어화 세상 사람 들어! 알아보고 알아보아서 남의 농사(마귀 농사) 그만 짓고 내 집 농사(인류구원의 영생농사)를 지어보세. 복 받으라 부르는 노래가 사해(四海) 즉 온 세상에 진동하거늘 천지의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 답답하고 불쌍 터라. 천지 합덕한 부모님이 무지한 인간을 살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경(眞經=격암유록)에 이른 말을 사람들이 모르고서 욕을 하니 내 죄상이 더럽구나.

天地천지가 합력합력하니 愚夫女知道德우부녀지도덕이요 時來運數此時시래운수차사하니 生死是非吉凶생사사비길흉이랴 路柳楊花노류양화격거늘고 淸風明月淸풍명월그만놓고 極樂世界극락세계 기운임을

世上人間세상인간노라보세

천지가 힘을 합치니 어리석은 부녀라도 도덕(道德)을 알아요 세월이 흘러 하늘의 운수가 도래하는 이때에 생사(生死), 시비(是非), 길흉(吉凶)이 판가름 나느니라. 노류장화(柳楊花=청녀나 기생)나 희롱하며 청풍명월(淸風明月=자연의 풍광)을 즐기며 세월 보내는 일을 그만해야 하는데 천지가 합력하여 내리는 기운이 극락 세계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놀아 보세 하는구나.

天無窮而人心천무궁이인심이요 人無窮而天心인무궁이천심이라 天心人心明明천심인심명명하니 明天地명천지날과달이 日月天道德일월천도덕이네 無窮歲月무궁세월자나기니 死未生初사말생초보단말가 운수있는저사람은 生初생초보아 歸一귀일천 운수없는저사람은 生 초生初물라 歸一귀일하네

하늘의 무궁함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무궁함이 하늘의 마음이라. 천심과 인심이 밝고 밝으니 대명(大明)천지의 해와 달이 천지의 도(道)와 덕(德)을 밝히도다. 무궁한 세월이 지나갔으니 죽음의 세상은 끝이 나고 영생의 새 세상을 보게 된다는 말인가? 살 운수(運數)가 있는 저 사람은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됨을 알아차리고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만 운수없는 저 사람은 영생의 새 세상이 시작됨을 알지 못하고서 흉한 죽음(마귀)의 길로 돌아가네.

弓乙圖歌 궁을도가

此時訪道翁君子차시방도침군자들 弓乙乙何不知궁을을하부지 左右弓弓弓좌궁우궁궁궁이요 臥立從橫乙乙외립종횡을을이라 泛濫無味弓乙범람무미궁을을일가 深索有理弓乙심색유리궁을을이라 弓理致궁이치알랑이언 兩白之理心覺양백지리심각하소

도(道)를 찾는 여러분들 궁을을을 어찌 모르는가? 좌궁우궁이 궁궁(弓弓)이요 즉 궁(弓)자가 등을 지면 불(火) 보불 불이요 을을(乙乙)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일어서고 가로세로로 합한 것이 만(卍)이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궁을의 참뜻을 모르니라. 그러나 궁을을 깊이 찾아보면 심오한 이치가 있느니라. 궁궁의 이치를 알려면 먼저 양백의 이치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先後天地通合時선후천지통합사에 河洛圖書兩白하락도서양백이라 兩白之意양백의의알라거든 兩白心衣仔細양백심의자세지라

衣白心白奧妙理이백심백오묘리 心如琉璃行端正심여유리행단정 大小白之兩白山대소백지양백산은 天牛地馬兩白천우지마양백이요 弓乙之圖詳見궁궁지도상견이면 左山右山兩山좌산우산양산이니 所謂兩山兩白소위양산양백이요 亦謂兩山雙弓역위양산쌍궁이라

선천(先天) 하도와 후지(後地=후천) 낙서가 통합하여 나오는 것이 양백이니라. 양백의 뜻을 알려거든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여 빛나는 것(이백심백 衣白心白)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몸과 마음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여 빛나는 오묘한 이치는 마음이 유리같이 투명하고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대백(大白)과 소백(小白)이 양백(양백산)이며 천우지마(天牛地馬)도 양백이요. 궁궁(弓弓)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좌산(左山)과 우산(右山)이 바로 양산(兩山)이요 소위 양산이 양백이요 역시 양산이 쌍궁(雙弓)이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단전호흡

나는 어려서 도박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과 적은 돈을 걸고 쏘다도 하고 도리짓고땡도 했다. 도박을 좋아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학교에 지각한 적도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왜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는지 나중에 피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피의 원리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원리를 말하는데 죄의 마음을 먹으면 죄의 피로 변하고 의로운 마음을 먹으면 의로운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죄에는 자범죄(自犯罪), 유전죄(遺傳罪), 그리고 원죄(原罪)가 있다. 자범죄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를 말하고 유전죄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말하고 원죄란 인류의 첫 조상이 지은 죄를 말한다. 누가 죄를 이렇게 분류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나 아마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이 말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승리제단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알아보자. 죄란 어떤 것입니까?

선생님: 죄란 마귀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 마귀니므로 죄란 마귀이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마귀니만 제거해 버리면 죄를 해결했다가 되고, 의인이 됐다가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마귀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생님: 사람은 원래 부처님이었다. 그런데 마귀가 부처님을 포로로 사로잡게 되었다. 태초에는 부처님과 마귀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귀가 부처님을 사로잡아 마귀의 영적 감옥에 가두는 순간 지금의 사람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마귀에게 졌던 것이다.

부처님이 마귀에게 졌다니요?

선생님: 부처님은 선한 신이고 마귀는 악한 신이다. 악신이 선신을 이겼다는 것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세상이 악이 강한가, 선이 강한가? 악이 강하지 않은가. 또한 자신을 잘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자신 속의 악이 강한가, 아니면 선이 강한가? 악이 강하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욕심이다. 양심은 선한 마음이요 욕심은 악한 마음이다. 욕심이 강한가, 양심이 강한가?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양심이 욕심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악이 함께 한다며 자신을 끈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했다. -계속

코로나19 합심하여 이겨냅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